

동아제약 강문석 이사 자진사임

회사소유 주식 37만5531주 감소 ... 지분은 그대로 보유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강신호 회장의 둘째 아들 강문석 동아제약 이사가 이사직을 자진 사임했다.

동아제약은 11월22일 강문석 이사의 퇴임으로 회사 소유주식이 37만5531주(3.75%)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강문석 전 이사는 9월 추가 이사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요구하며 경영권 확보를 시도했으나 10월31일 열린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패배해 무산된 바 있다.

강문석 전 이사는 강신호 회장과 특수 관계인으로 묶여 있으며, 비록 이사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자신의 동아제약 지분은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23>